

NBA, 별들의 빈자리 'G리거' 뜬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이 NBA를 강타한 가운데 G리거(NBA의 마이너리그 격) 선수들이 대거 기회를 얻고 있다.

지난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오미크론 유행이 NBA를 유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오미크론 유행'은 유행이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빠진 자리를 채우는 선수들을 가리킨다. NBA 리그 운영 규정에 따라 주축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수 없다면 가능한 '마이너리거'를 풀입해 경기를 치러야 한다. NBA는 리그 중단을 막기 위해 G리거 선수들과의 10일짜리 단기 계약을 허용했다.

WSJ에 따르면 G리거 선수인 알립 포드(레이크랜드 매직)는 지난 18일 오전에 놀랄 만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밤 올랜도 매직 경기에서 뛰어야 하니까 얼른 짐을 싸세요." 포드는 "그때 건조기에 옷을 돌리던 중이었다. 마르지도 않은 팔래를 꺼내 챙긴 뒤 바로 짐을 싸야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테스트를 받고 음성 나오자 올랜도 매직 선수로 곧장 경기에 투입됐



▲ NBA 경기 중 한 장면. 사진=nba.com

다. 꿈에 그리던 NBA 무대 데뷔전이였다. 그는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7분을 뛰었다.

포드 역시 10일짜리 계약을 했는데, G리거 한 시즌을 뛰는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 포드의 G리거 연봉은 3만7000달러지만 NBA 특별 규정에 따른 10일 계약의 최소 금액이 5만3000달러다. 과거 NBA에서 뛰었던 선수라면 10일짜리 계약에 대한 보수가 15만달러를 넘는다.

류현진·김광현, 한술밥 먹을까



▲ 류현진(좌)/김광현(우). 사진=mlb.com

미국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지난 25일 "토론토가 케빈 가우스만을 영입하면서 로테이션 대부분을 채웠지만, 5선발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하면서 5선발로 영입할 수 있는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김광현을 언급했다.

SI는 "김광현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효과적인 투수 중 한 명이었다. 그는 2년간 35경기(28선발) 145.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2.97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100이닝 이상 투구한 투수 중에 베리오스, 루카스 지올리토, 클레이튼 커쇼보다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극찬했다.

이어 "KBO와 MLB에서 180이닝을 넘긴 해는 딱 한 시즌뿐이었다. 그는 이닝이터는 아니지만, 토론토의 5선발은 꼭 많은 이닝이 필요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베이징 올림픽과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국가대표로는 함께 뛰었지만, 한 팀에서 함께 생활한 적은 없다.

한편 미국 스포츠 매체 '커비스크립'은 지난 27일 시카고 컵스가 선발진 강화 차원에서 김광현 영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김광현은 KBO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온 이후 환상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약은 여전히 저렴할 것이다. 매우 영리한 계약이 가능한 선수"라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가성비 좋은 선수라는 의미다.

이 매체는 또 "김광현은 컵스 선발진에 필요한 좌완 투수다. 3, 4선발로 활용 가능하다. 지난해 코로나19 악재 속에서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1.62의 아름다운 활약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5개 대회 출전에 그친 페더러, 수입은 '톱'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올시즌 5개 대회에 출전에 그친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21년도 수입에서 9천60만 달러를 기록, 테니스 선수로는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 종목을 합쳐서도 7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이다.

페더러의 수입 중 대회 상금은 60만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9천만달러는 상금 외의 소득이다.

지난 29일 '테니스코리아'에 따르면 페더러의 수입은 주로 스폰서 계약과 상업광고 출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니클로사가 가장 큰 고객이다. 페더러는 유니클로사와 10년 계약을 하면서 연간 3천만 달러, 총액 3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 이 장기 계약은 페더러의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2027년까지 지급된다.

그 밖에도 메르세데스 벤츠(자동차), 크레디트 스위



▲ 로저 페더러. 사진=포브스.com

스(금융), 톨렉스(시계), 바릴라(식품), 모엣 샹동(와인) 등과도 계약 관계이다.

페더러가 큰 수입을 얻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테니스 실적과 전 세계 팬들의 존재 덕분이다. 페더러는 예의 바르며, 정정당당하며 우아하게 플레이하는 선수로 인식 되어 있다. 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미지이다.

페더러는 유니클로와 의류 계약을 맺으면서 신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국 브랜드인 'On'에도 투자하고 있다. 올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 회사로 인해 페더러는 내년부터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생겼다.

페더러는 재활 과정을 거쳐 투어에 복귀할 예정이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